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의 미래비전

출연(연) 역량 뒷받침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기존의 기초와 산업 2개 영역으로 나뉘어 관할하던 25개 출연(연)이 커다란 지붕 아래 한 울타리 안에 모인 것이다.



글_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kmin@stepi.re.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학위를, 동 대학원에서 기술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기초과학정책 및 대학연구시스템, 기술경제성 분석 및 평가, 과학기술인력 정책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 의미

최근 30년간 역대 정부는 정권 출범과 함께 출연(연) 구조개편을 추진하였다. 경영합리화와 연구생산성 제고가 목표였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반발과 연구환경의 안정성을 해치면서 막상 추구했던 개혁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현장의 여론을 반영하여, 출연(연)의 상위 지배구조인 연구회 구조개혁을 통해 출연(연)의 변화와 미래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연구현장의 안정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개혁을 추구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다.

출연(연)의 공공기능 확대

우리나라 출연(연) 역사는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당시 정부연구소가 아닌 재단법인 형태의 연구소를 출범시킴으로써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경영의 효율성을 출연(연)에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형편으로는 국공립 연구소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간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범은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연구소로서의 출연(연)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연(연)이 정부연구소로서의 공공적 기능을 다짐하면서 재탄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융합연구 활성화

특히 이번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탄생하게 된 절대적 배경 중 하나가 국가차원의 융합연구 활성화 필요성이다. 그간 출연(연)이 칸막이식 경영으로 대학, 산업계 등과의 협력연구가 소홀했다는 비판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커다란 조류인 융합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출연(연)의 상위 거버넌스인 기존의 2개 연구회를 통합함으로써 25개 출연(연) 간은 물론 대학 및 산업계와의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한 융합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가 바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다.

자율적 구조조정 기능 확보

연구회는 소관 출연(연)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관리주체이다. 2012년 말 기준 출연(연)은 국가전체 R&D(연구개발)에 있어 7.4%를, 연구인력은 4.4%를 차지하는 거대 연구집단이다. 연간 4조 원 이상의 연구비를 쓰는 출연(연)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높은 연구생산성이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관리자로서 최선의 구조조정본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출연(연)의 연구영역은 고도의 전문기술 분야로서 구조개혁과 조정을 타인이 아닌 과학자 집단 '스스로'의 전문성과 기능으로 실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스스로'라 함은 바로 연구회를 지칭하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현황 ('12년 기준)

	출연(연) (억 원)	국가 전체 중 비중(%)
예산	40,898	7.4
인력(연구직)	16,081	4.3

출처: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연구비의 효율적 사용과 연구생산성 증대

출연(연) 연구비는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최

근 복지수요 급팽창에 따른 재정여건의 악화로 향후 정부R&D 예산증가는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에는 연평균 3% 정도 현상유지 수준의 연구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연(연)은 기존 연구비 활용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연구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국내와 해외에서의 수탁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일정부분 연구비 획득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

수월성 인재확보

출연(연)의 경쟁력 원천은 우수한 연구성과에서 나온다. 이 말은 수월성 연구인재를 확보하고 이들로부터의 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필요시 과격적 보상체계를 제공하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활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원과 연구회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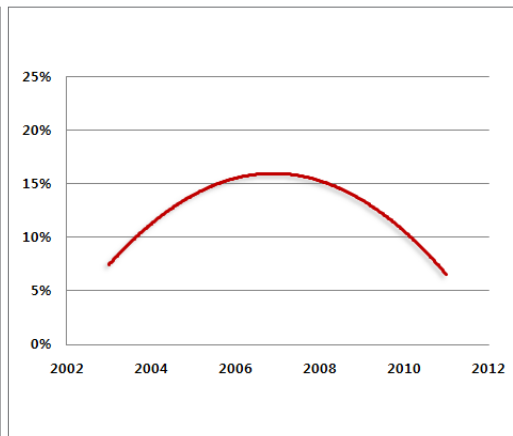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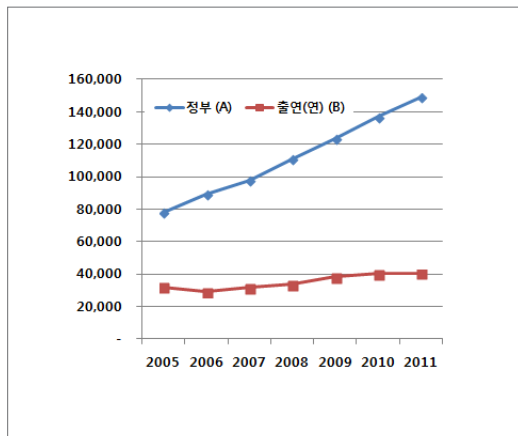
기관장 리더십 확보

최근 10여 년간 출연(연)이 산업계와 대학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느리고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도 국민의 기대에 미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원인의 상당부분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출연(연) 기관장들의 리더십 부재에 있다고 판단된다.

새로 출범하는 연구회는 소관 기관의 원장들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고 경영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 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인재를 연구원 스스로 발굴하여 키우면서, 연구회는 현행 기관장 임기를 5~6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월성 · 공공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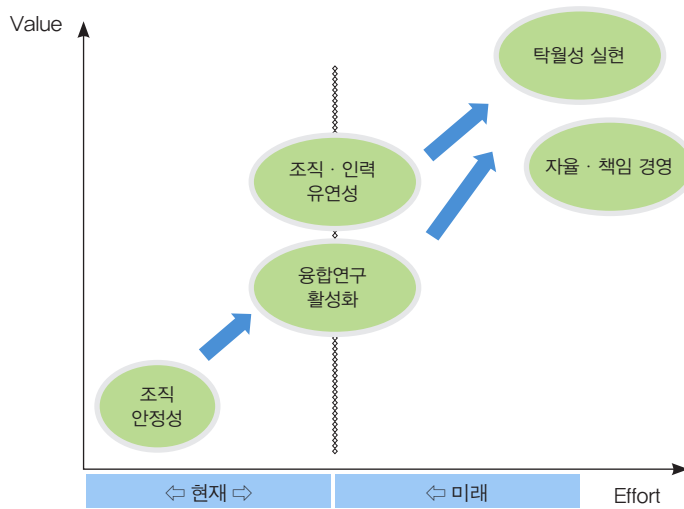
어렵게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 지평선은 수월성이다. 과학기술의 본질은 혁신과 수월성인데, 여기서 혁신은 과정이고 수월성은 결과이다.



▶ 정부와 출연(연) 연구개발비 현황(억원)

▶ 전년대비 출연(연) 연구개발비 성장률(%)

주: 출연(연)은 기초기술 · 산업기술연구회 자료 협조(출처: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 출연(연)이 추구해야 할 가치사슬

(출처: 민철구(2010),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기능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기초기술연구회 재구성)

특히 모방에서 창조로 전환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패러다임을 감안한다면 수월성에 입각한 탁월한 연구성과는 출연(연)이 지양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모험, 도전,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수월적 성과를 뒷받침하는 우수한 과학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출연(연) 경영의 최고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국가’라는 명칭은 출연(연)이 지향하고 확대해야 할 공공적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전, 지구환경, 저출산 고령화, 자원·에너지, 복지 등은 과학기술이 해결해야 할 지구문제이며 특히 출연(연)이 공공 기능의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범부처적 과제이다. 이제 과학기술은 더 이상 경제성장을 위한 하위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결사로서의 사회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할 때다.

하지만 최근 출연(연)에 대한 단기가시적 연구성과 제시 요구가 빗발치면서,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공공 연구에 대해 충분한 R&D 투자와 연구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심층진단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방성 확대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나라 출연(연)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개방적 혁신을 통한 선진형 R&D시스템의 체화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방은 단순히 연구시설 장비의 대외개방과 타연구주체와의 협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 협력연구의 확대, 핵심 연구인력의 교류, R&D 글로벌화 등을 포괄한다.

특히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출연(연)의 경우 연구비와 연구인력의 일정부분을 대학에 개방하는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 주요 연구직위에 대한 보직공모제를 통한 외부의 유능한 연구인력을 수혈하는 것 또한 시급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⑤7